



바이올리니스트 율리아 피셔

글 | 최은규 (음악 칼럼니스트)

요즘 들어 율리아 피셔가 부쩍 자주 한국 무대를 찾아오고 있다. 바이올린 음악을 사랑하는 이들에겐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지난 3월 런던 필하모닉의 내한공연 당시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참신하게 해석해내며 강한 인상을 남긴 율리아 피셔는, 7월에는 다시 드레스덴 필하모닉과 함께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선보인다. 멘델스존과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은 두 곡 모두 '3대 바이올린 협주곡'에 속하는 주요 바이올린 레퍼토리로,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설득력 있게 연주하기 어려운 곡이지만, 지난 멘델스존 바이올린 협주곡 연주에 비추어볼 때 이번 드레스덴 필하모닉 내한공연에서 율리아 피셔는 다시금 새롭고 매력적인 브람스 바이올린 협주곡 연주를 펼쳐 보이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10대의 나이에 바흐를 마스터하고 20대에 파가니니를 뛰어넘은 음악가

율리아 피셔는 매우 조숙한 음악가다. 오래전 그녀가 10대 소녀일 당시 녹음한 바흐의 음반을 처음 들었을 때의 놀라움은 아직도 생생하다. 잘 다듬어진 톤, 명확하고 섬세한 프레이징, 세련된 감정 표현을 담은 그 연주는 10대 소녀의 연주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무르익었다고 할 정도였다. 어린 나이부터 습득할 수 있었던 음악작품에 대한 통찰력과 안목, 그것은 거저 얻어진 것은 아닌 듯하다. 그녀는 이미 매우 어린 시절부터 음악작품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방식에 익숙할 수밖에 없는 음악환경 속에 자라났다.

음악가 집안에서 성장한 율리아 피셔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첼발로를 연주하는 소리를 들으며 자랐기에 그녀에게 음악은 자연스럽게 호흡하는 '일상'이었다. 악보를 보고 해석하는 일 또한 그녀에겐 숙제와 같이 부담스러운 일이 아닌 듯하다. 그녀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바이올린 협주곡을 공부할 때 당연히 바이올린 독주 악보뿐 아니라 오케스트라의 다른 파트의 악보들도 모두 연주해보며 작품을 파악하는 건 기본이다. 비발디의 바이올린 협주곡 '사계'를 녹음하기 훨씬 전에도 피셔는 오케스트라의 모든 파트를 익혔을 뿐 아니라 이 곡의 첼발로 파트까지 공부했다고 하니 음악작품에 대한 그녀의 접근은 전체적일뿐 아니라, 또한 남다를 수밖에 없다. 작품의 핵심을 파악하고 전체 성부의 움직임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본 연주자만이 자신의 방식대로 작품을 설득력 있게 연주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일찍이 10대의 나이에 바흐의 음악을 자연스럽게 체득한 율리아 피셔는 지난 2010년에 발매한 파가니니 무반주 바이올린 카프리스 음반을 통해 파가니니 음악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연주 방식을 선보이며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그녀는 파가니니의 음악 속에서 의외의 서정성을 이끌어내며 악마적이며 기교적인 작품이라 여겨지던 파가니니의 무반주 바이올린 카프리스를 쇼팽의 녹턴만큼이나 감미롭고 듣기 좋은 음악으로 재탄생시켰다. 이는 작품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통해 파가니니 음악에 대한 일반적인 통념에서 벗어날 용기가 없이는 힘든 일이다.

사실 파가니니의 음악에는 이탈리아 벨칸토 오페라를 능가하는 서정성과 섬세한 낭만주의가 깃들여 있음에도 이를 잘 드러내기는 쉽지 않다. 무엇보다 기교적인 어려움 때문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바이올리니스트들은 과장된 제스처와 악마적인 표현으로 기교적인 어려움을 감추려 하거나 테크닉의 정확성에 지나치게 집착하기도 한다. 하지만 피셔는 테크닉에 그다지 집착하지 않는 듯하다. 아니 그보다는 테크닉은 그녀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편이 더 나을 것 같다. 아무 의미 없이 휙 지나가버릴 수도 있는 빠른 장식음에도 은근하고 세밀한 뉘앙스를 보태는 그녀의 음악적 감각은 일품이며, 악보에 적혀 있는 연주법을 고수하기보다는 악곡의 본질이 가장 잘 드러날 수 있는 연주법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이를 반영해내는 그녀의 연주는 매우 특별하다. 그녀는 이미 20대의 나이에 '악마의 바이올리니스트'라 불리는 파가니니를 넘어섰다.